

교회목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 11 : 40)

순례자

발행인:이종운

발행처:서울 장로교회

주 소: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 화:517-7651~5

F A X:512-1225

비전 2000 운동

교구별 전도전략 개발한다

비전 2000운동이 온 성도들의 관심 속에 그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각 교구에서는 효과적인 전도를 위한 전도 전략을 수립 제시하였다.

첫번째는 기도전략이다. 이것은 오순절의 역사를 준비하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다락방 기도, 금요철야기도, 12시간 연속기도, 산상기도도 도입 등이 있게 된다.

두번째는 다락방 전략이다. 다락방 전도는 지역전도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다락방 예배 때 다락방 태신자들을 설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결실하지는 계획이다.

세째는 수요 순례자 전략이다. 이는 수요 예배 후 지역별로 노방및 축호전도를 하는 것이다. 이때 순례자와 전도지를 배포하며 “4영리”를 갖고서 직접 전도하여 결실하게 된다.

네번째는 “사랑의 편지” 전략이다. 즉 태신자들에게 전도편지를 계획적으로 발송하여 전도하는 것이다. 예컨대 요즈음 새로운 전도전략방법으로 나온 이슬비 전도편지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전략은 싸움에 있어 승패를 가름할 수도 있다. 분명 이번 가을에는 많은 태신자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94년도 봉사부서 결정

-겸손히 충성하라-

우리교회는 '94년도를 위한 당회 보직 및 각부 부서 책임자를 10월 중에 발표하고 11월중에 부서별 조직 및 준비를 완료한후 12월초에 임명식을 갖게된다.

당회장의 목회 지침에 따라 당회의 13개 위원회를 9개 위원회로 축소 조절한 후 보직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당회
서기:이영세 부서기:노문환
기획위:유윤진 예배위:최중시
교육위:김광신 교구위:노문환
선교위:오정수 구제위:정병무
재정위:임광식 건축위:박철훈
감사:김대호

★ 「순례자」담당:이영기, 박은경
★ 출판담당:원웅철
★ 장학위:이남호
★ 교회갱신연구위(KIMCHI):
원감-이웅선,
담당-윤찬오, 성경경

교사 체육대회 개최

- 10월 23일(토) 한강고수부지 뚝섬 A구장에서 -

제1회 교사체육대회가 마침내 이번 주 토요일(23일)에 한강고수부지 뚝섬지구 A구장에서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11개부서 온 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모든 계획이 각 부서에 전달되어 준비하고 있으며 서울교회 교사는 긍지와 명예를 걸고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채택된 경기 종목에는 축구, 배구, 줄다리기, 발야구 400m계주와 장외 경기로서 탁구가 있게 된다.



목회자
동정

◎ 서울 YMCA(회장 전대련) 창립 제90주년 기념식이 오는 10월 28일(목) 오전 11시 서울 종로 YMCA 회관에서 있게 되는데 이날 이종운 목사는 YMCA 이사회의 추천으로 특별 표창을 받게 된다.

◎ 연세대학교 총 동문회 이사회(회장 방우영)는 대학발전과 동문회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는 표창을 이종운 목사에게 주기로 결정하고 10월 14일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식을 가졌다.

이 목사는 연세대 신과대학 동창회장직을 역임하면서 모교와 기독교 정신 구현에 많은 헌신으로 하므로 표창을 받게 됐다.

상담실 문 크게 열린다.

우리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하도록 교회의 전문가들의 협조를 얻어 상담실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말씀과 기도로 모든 문제를 푸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고있는 성도들에게 상담실은 법률 세무 가정문제로 얽매인 끈들을 풀어줌으로 더욱 활기차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헌신케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상담과목	상담시간	상 담 자	상담장소
가정상담	토요일 오후 2:00~5:00	심상권 목사	새가족부실
법률상담	오후 12:30~11:30	임상현 집사	
세무상담	오후 12:30~1:30	최용걸 집사	

창세기강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창3:1-7)



시험과 불순종

이 종 윤 목사

창 세기가 모든 책의 시작이라 하고 하는 별명이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죄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이며 어떻게 해서 인간속에 왔습니까.

창3:1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는 말씀을 이미 지난 주간에 공부했습니다. 이 간교한 뱀(사탄)이 여자에게 들어와서 여자로 하여금 쓰러지게 하고 그 여자가 다시 남자를 넘어뜨려서 더불어 죄를 범하게 된 것이 인생가운데 들어선 최초의 죄의 경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들어와서 나타난 현상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불순종

죄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불순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순종이 곧 죄요 죄가 곧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앞에서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불순종의 죄이며 인류 최초의 원죄는 불순종으로부터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불순종은 모든 죄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다 받아야 되겠는데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겨지는 열매가 결국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술을 먹는 것과 담배를 피우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고 말을 합니다. 술 자체에 죄가 있다면 이스트로 빵을 만들 때 술 성분이 들어가는데, 또 주사를 놓을 때 알코올을 피부에 바르면 우리가 죄를 먹고 바르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주일이 되어서 운동하고 놀러다니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규칙과 어떤 방법을 깨뜨렸을 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 반항심

불순종을 한 다음에 그것을 책망 받으면 빨리 순종하고 회개하면 좋겠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고 반항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반항을 하는데 아주 논리적인 반항을 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죄지은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반항심을 자꾸 유발시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악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롬3:11~12) 의인이 없다는 말은 “의인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불순종하고 반항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의인이 못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나오는 열매가 하나 있는데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겼다는 것이고 이 말은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소외되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죽으

니 육신도 죽게 되어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도 없고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게 되니 결국 죄지은 인간은 진리를 찾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으며 세상의 악한 것만을 찾고 나간다는 말입니다.

3. 교만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이 말은 반항심만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고 네가 피조물 가운데 제일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너보고 그 과일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고 자꾸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여자가 만지면 죽을까 하노라 할 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 하리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자존심이 다시 부각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거짓말만 해서 죄 짓는게 아니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만 죄를 짓는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잠재해 있는 이 자존심이 커지면 결국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칼빈은 원죄를 다른말로 교만죄(pride)라 했습니다. 오늘 이 교만죄를 우리가 지고 있는 한 원죄는 그냥 남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자존심이 없으면 그 것도 또 보기 우습습니다.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존심은 갖되 그것이 교만이 되면 안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교만의

뿌리가 남아 있으면, 한 모퉁이에라도 자존심이 남아있다면 용서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옵소서”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첫째 아담은 교만하여 죄를 범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여 그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아담은 불순종으로 범죄 했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여 털끝까지 앞에서는 양 같이 조용히 죽는 자리에까지 가셨습니다. 아담은 끝까지 반항을 하려고 덤벼 들었지만 예수님은 순종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첫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한 이 죄를 반복하지 않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제에는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본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도 갱신되어야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6세기는 매우 종교적인 시대였다. 감동적인 예배와 설교가 웅장한 석조건축물에서 울려 퍼졌고 조그마한 도시에도 수십개의 기도원과 신학교가 세워졌으며 신생아의 이름이 성자의 이름을 따라 지어질 만큼 당시 구라와 사람들은 매우 종교적이었다. 그러나 그 종교는 타락한 종교였고 잘못된 종교였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잘못된 교회를 제자리로 올려놓기 위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외치면서 만민제사론을 주장했다. 교회가 갱신되어야 한다는 말은 교회 본질의 개혁이 아니라 타락하여 빛나간 것들을 바르게 하자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세워지고,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 되는 신구약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하자.



어떤 이단의 해프닝

최고의 지성이며 최후의 양심인 대학을 우리는 존경하고 선망한다. 더구나 S대학이라면 설명이 필요치 않은 명문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10월 5일 오후의 해프닝은 대학당국의 처사와 학생들의 수준을 재평가 해야 할 수치스러운 일로 기록될 것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참 부모와 성악시대』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진행된 초청 강연이 그것인데 자칭 예수라고 하면서 온갖 비성서적인 작태로 세상을 우롱하고 감히 엄위하신 하나님의 이름까지 망령되어 일컬어 온 세상의 지탄을 받아 오던 자의 부인이 2시간이나 강연을 했더니 양의 가족을 쓴 이리를 분별 못하는 지성을 개탄하며, 도대체 이를 용인한 당국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강연회를 주최한 소위 원리연구회라는 집단은 종교적으로 이단이요 윤리적으로 패륜이며 추종자들을 축제의 수단으로 삼아 정치적 울타리를 치기에 급급함은 물론 평양으로, 붉은 광장으로 다니면서 자기 현시 내지는 우상화에 혈안이 된 모 교주의 사병화된 집단임을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 귀중한 시간에 개인 행적을 녹화한 필름을 보게하고 이단을 합리화하는 망령된 변명을 듣게 한 사실을 이땅의 천이백만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개탄한다. 본 난은 말씀의 홍수속에서 참 말씀의 기갈을 이미 지적한 바 있거니와 이단이 진리운운하며 전국을 순회하며 해괴한 행태를 계속할 계획이라니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젊은 지성들을 오도하는 자들의 작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냉철한 이성과 바른가치관을 심어 장차 이 나라의 동량으로 육성하기에 전력을 쏟아야 할 상아탑에서 유치한 쇼에 시간과 장소를 할애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표를 발견한 기쁨으로

김 창 모 목사(서울 당일교회)

교계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알찬 기회를 놓칠까봐서 등록하여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제4학기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이제 두 학기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입구에서부터 한복으로 단장한 집사님들의 환대가 무척 쑥스러웠는데, 이제 같이 인사할 수 있음이 그만큼 친밀감이 형성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사실상 작은 등록비로 운영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한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강의하시는 이종윤 목사님에게서 느낀 점은 먼저 목회자가 철저한 말씀과 실력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현실을 갱신해 나가는 부단한 노력에 경주해야 함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더우기 목사안수 받은지 이제 2년째인 젊은 목회자로서 따를만한 사표(師表)를 발견한 것은 큰 기쁨입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후기 산업사회의 물결 속에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워졌기에, 말씀의 본질을 굳게 지키면서 현상황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적용력이 필요한 시기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종윤 목사님의 강의에서는 특히 말씀을 오늘에 적용시키는 방법론이 탁월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또한 주제 하나를 가지고 다방면에 걸쳐서 깊이 연구하

피택자로 7인과의 만남(Ⅲ)

윤 봉 준 집사

오직 기도의 용사가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평신도 때 느껴보지 못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인간적인 어떤 결심보다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바로 내일 있을 장로고시를 앞두고 그간 열심히 공부했다는 윤봉준 집사님의 고백이다. 우리교회는 오는 11월 28일을 교회설립 2주년과 함께 추수감사절로 지키며 뿐만 아니라 창로장립식을 갖게 되는데 이를 앞두고 집사님은 그어느때 보다도 긴장된 마음이라고 하신다.

식품포장기계 제조업을 하시는 집사님은 모두가 불경기라고 아우성인 이때에 회사에 주문이 쇄도해 야간작업까지 하고 있다며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 앞에 감사를 드리신다.

군시절 예수님을 영접한 이래 늘 뜨거움을 간직한채 오직 한 길로 신앙생활을 하신 윤봉준 집사님은 부인 김명화 집사님과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었는데 특히 아들 요셉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릴 것을 서원하고 기도하신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발생하는 일련의 대형사고를 바라보며 신앙인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천만이 넘는 성도를 자랑하면서 장로를 지도자로 세우고 기도하지 못한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기독교인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방관자로 남아 있을 때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들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다. 모두가 교회의 건축과 부흥을 말하면서 실제로 얼마나 기도했는가는 우리 스스로가 자문해볼 일이다. 그런 면에서 집사님은 우리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기도라고 말씀하신다.

현재 9교구 교구장으로, 사랑부 부장으로 또 장학위원장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신 집사님은 가까이서 장애자를 돌보며 배우고 느끼는 것이 많다고 하신다. 이번 비전 2000운동에 집사님은 회사 전직원들을 대신자로 정했는데 비전 2000운동이야말로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고 열심히 기도하신다고 한다.

늘 건강에 자신이 없었으나 올들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고 체중도 많이 불었다고 하시며 건강한 만큼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시겠다고 마지막 순례자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다.

신 외부강사님들의 강의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목회자세미나에 바라고 싶은 것은 주제강의 후에 참석자들이 반을 나누어서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토론할 수 있는 장(場)이 앞으로 강의실 여건이 개선된 후에는 이뤄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중집회 형식이 아닌 소그룹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자기발전과 성숙을 지향하고 있는 현대인의 욕구를 목회자들이 먼저 체감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거듭 한국교회 갱신연구원과 이종윤 목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해마다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례자칼럼

생명의 길

장웅휘 목사

생명이 없다는 것은 활동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진보도 없는 죽은 상태를 가리킨다. 생명이 없으면 흑암이고 멸망이다. 사실 나무가 생명이 있을 때에는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으나, 나무의 생명이 사라진 때에는 도끼로 찍혀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로 던져질 것은 뻔한 일이다.

오늘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생명에 굶주려 있다. 때문에 생명을 찾으려고 문학에서 혹은 철학과 과학에서 그 방법을 찾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법, 기공, 도인술, 심령과학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서는 아무도 진정한 생명을 발견할 수가 없다.

예수는 예수 자신이 생명의 주되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주를 바로 믿고 바로 전해야 한다. 어느 국가든지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은 법률, 윤리, 도덕, 정치, 금전이 없어서가 아니다. 불의와 죄악이 번성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삶을 돌이키는 일이다.

한국 초대교회 매서인은 “쫓겨남”을 팔면서 전도하였다. 공짜로 주어도 받을까 말까 한 때인지라 여간 고생이 아니었다. 매서인중에 최병호라는 사람은 강진과 영암 그리고 해남 등지를 다니면서 활동하였다. 하루는 명암에서 강진을 넘어가는 데 도둑이 잘 나타나는 ‘병재’라는 고개를 넘게 되었다. 그때 망을 보던 도둑들은 약탈하기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듯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고, 시비를 걸었다. “등뒤에 있는 짐보따리를 내려라!” “나는 성경책을 파는 매서인입니다. 당신들도 이 책을 읽고 회개하십시오.” 최병호의 말에 위압감을 느낀 도둑들은 어이 없다는 듯이 하늘만 바라보았다. 그후로 최병호는 단 한번도 봉변을 당하지 않고 그 재를 넘나들면서 성경책을 팔았다.

초대교회의 담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말씀 전파에 힘쓰며, 인내하며 권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권면했다. 우리는 비전 2000을 맞이하여 담대하게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여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사람 낚는 어부는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갖고
확신있는 기도와 전도로
영혼을 수확하는 자이다.


과야의
소리

중국에서 온 편지

지난 10월 10일 아세아 방송국을 통해 우리교회 주일설교가 북방지역으로 송출되자마자 중국의 교포들로부터 감사의 메시지가 이종운 목사 앞으로 날라왔다. 짧은 시간이지만 30분의 방송을 듣기 위해 새벽 4시에 기상하여 말씀을 경청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는 S집사는 화요일 새벽 메시지를 하루의 화제로 삼을만큼 현지 교포사회엔 큰 충격이 된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편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로부터 우리교회 녹음테이프 구입신청 전화 문의가 계속되고 있어 「이 복음이 방송을 통해서 전파되듯 테이프를 통해서도 확산되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방송 테이프는 최정길집사(3교구)가 제작을 하고, 일반 녹음 테이프는 유복환 권찰(3교구)이 담당하고 있다.

70인 전도대 발대식

70인 전도대 발대식이 지난 10월 9일(토) 오후 3시, 5층 예배실에서 은혜롭게 거행되었다.

이날 전도대원들은 Vision 2000운동의 취지에 따라 이 땅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없도록 전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였고, 발대식

후 대원들은 2명씩 짝을 지어 노방전도에 임했다.

노방전도후 대원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전도 보고회를 진지하게 가졌는데 70인 전도대는 앞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함께 기도하며 노방전도에 임하게 된다.

고우소식

◎ 원필현목사(최영진 사모) 가정은 지난 9월 28일 득남하였다. 산모와 아기는 모두 건강하며 기도해 주신 온 교회에 감사하고 있다.

◎ 신순우집사(11교구)는 대

산농촌문화재단(회장 심용호)이 제정하여 농어촌 발전에 공이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공직자부문 공로상을 받았다. 신 집사는 수상 소감으로 “받은 상금을 하나님의 건축헌금에 바치게 되어 감사한다”고 했다. 현재 농수산부 유등 국장으로 봉직하는 신순우 집사의 수상을 축하한다.

• 금주의 목회자 세미나 안내 •

제 1 교 시	일시	제 2 교 시
14:00-15:30(90분)		15:50-17:20(90분)
성경적 교회성장 원리	18일	길선주의 생애와 설교 김 인 수 교수 • 장신대
이 종 운 목사 • 서울장로교회 • Ph. D., Univ. of St. Andrews, (영국)	25일	물러(G. Muller)의 경건과 기도 홍 치 모 교수 • 장신대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예배당을 짓게 하소서.
- 목회자 세미나에 은혜스러운 진행을 위하여
- 비전 2000운동이 계획적으로 순조롭게 전개되도록

■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주 일	I 오전 9:00
예 배	II 오전 11:00
	III 오후 2:00
찬 양 예 배	오후 5:00
수 요 예 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금 요 기도회	오후 12: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 교회악도

